

종교계 실직자구제현황

불교 하루 수혜인원 1만1천4백명 '최다'

종교구호시설 258곳중 불교계운영 69곳 '3위'

실직자들 불교구호시설 '선호'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20일 오후 4시 서울 탑골공원 인근의 새마을중앙회관. 길다랗게 늘어선 실직자와 무의탁 노

무료급식·실직기금·쌀모으기등 '자비 확산'

인들의 행렬. 처음 무료급식이 시작되던 지난 4월과는 달리 '공짜 밥'을 부끄러워 하는 이도 적고, 주고 받는 말에도 따듯함이 배어있다. 이 무료급식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실직자 구호시설. 급식을 시작한 지 1백일째인 7월 20일 현재 연인원 3만여명이 이곳을 찾았다. 지금까지 동참한 자원봉사자는 모두 1천4백여명. 각 종단, 도심 사찰, 신행단체들이 돌아가며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다음 날 오후 4시30분 서울역 주변에 위치한 서소문공원. 공원 이곳저곳의 나무 그늘에 누워있던 실직노숙자들이 하나 둘 씩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이웃을 여는 집' 앞으로 모여든다. 하루 이용자는 6~7백명. 날마다 소요되는 쌀만 해도 80kg들이 한 가마. 하루하루 쌀 장만하기도 벅찬 실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알고 스님들도 발벗고 나섰다. 새불교전국승가회가 '실직가정'을 위한 자비 쌀 모으기 운동본부'를 지난 6월11일 창립. 벌써 서울 금천구 관내 영세민들에게 쌀 55가마, '이웃을 여는 집'에 쌀 57가마를 각각 전달했다. 청도 운문사 강원도의 강주·학인스님들은 전원이 '이웃을 여는 집' 후원회원으로 가입에 화제가 되기도 했다. 현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실직자 구호시설은 모두 4개. 서계동 보현의집, 탑골공원 무료급식소, 영등포근로자합작소, 수송동 보현의집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보현의집은 서울 뿐 아니라 부산 등 전국에 개원한다는 것이 조계종의 방침이어서 실직 구호시설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렇다면 불교계의 실직자 구호사업은 타종교에 비한다면 어느 정도일까. 대답은 '잘하고 있다'는 것. 최근 문화관광부 증무실이 집계한

(종교계 실직자 구제활동 현황 조사)에 따르면 불교계 구호시설을 이용하는 실직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7월16일 현재 2백58곳의 종교계운영 실직자 구제시설 가운데 불교는 개신교(1백3곳) 천주교(73곳)에 이어 69곳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수혜인원은 가장 많은 1만1천4백명(종교계 전체 수혜인원은 3만2천5백10명)으로 나타났다. 수혜인원을 교단별로 보면 불교계에 이어 개신교가 1만2백명, 천주교 9천9백30명, 원불교 9백80명 순. 불교계는 기독교계 다음으로 실직자 기금모금에도 적극 나섰다. 조계종 탁발행사로 2억원, 천태종 경제난국 극복 구국법회에서 2천만원 등 적지 않은 기금을 모았다. 조계종은 이와함께 실직자를 위한 후원회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 교계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같은 발 빠른 실직자구호사업의 성과를 경험상이 좋단은 물론 전국 본말사와 전종도들이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jgkim@buddhopia.com)

30~40대 노숙자 73%

'이웃을 여는 집' 실태조사

"실직 3개월내 노숙" 54.7%

실직노숙자의 절반 이상인 54.7%가 3개월 이내에 노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직후 생계대책이 몇 개월도 마련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직노숙자들의 연령은 30~40대가 70.3%로 대부분을 차지, 경제상황의 악화로 인해 실직노숙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사장 김홍준)이 최근 유료봉사원으로 지원한 실직노숙자 3백42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직자의 연령층은 41.5%가 40대, 31.8%가 30대, 17.7%가 50대 순으로 경제활동 연령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또 전직이력은 42.8%가 건설·일용직, 22.3%가 회사원, 10.8%가 개인사업, 각 5.9%가 운송업·주방일 등으로 나타나 실직노숙자들이 사회 각 계층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밖에 가족관계는 45.1%가 30세 이상 미혼, 33.6%가 기혼, 14.6%가 이혼·사별·별거, 6.6%가 30세 이하 미혼 등으로 나타났다.



실직자들은 정부 구호시설보다는 따뜻한 자비심이 느껴지는 종교계 구호시설을 선호한다. 사진은 탑골공원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자들이 배식하는 장면.

통도사 백양사 범주사 등 9개 사찰의 도메인 이름이 사재기 된 사실이 최근 알려져 불교계를 당혹스럽게 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사재기 장본인인 마우스정이 4개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인터넷 소풍-풀을 개설·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익명성이 보장된 인터넷에서는 개인과 단체가 객체화된 시민 즉 네티즌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도메인 이름을 이용해 야 한다. 도메

은 모두 '선등복자 우선권'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는 도메인 이름의 사재기·도용으로 인한 분쟁이 잦은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 때문에 생긴 것이다. 통도사의 경우 인터넷-닉사를 통해 'tongdosa.org'를 등록하려고 했지만 '선등복자 우선권'의 제약으로 거부됐다. 현행 국내법상 통도사와 같은 사찰명은 지적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뒤늦은 감은 있지만 마우스정이 사찰 도메인 이름을 모두 포기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



오종욱 (취재1부 기자)

인터넷 사찰이름 보호

인 이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중요 사찰의 도메인 이름이 사재기·도용된 이 일은 정보화 시대의 총아로 떠오른 인터넷에서 불교계가 무형의 자산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어려운 과제를 남겼다. 어느 나라에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려는 사람, 단체, 기관들은 자국의 전산원 혹은 미국의 인터넷(사)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두 기관

이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 불교계 무형의 자산이 지켜질지 의문이다. 한국전산원은 "국내·국제에서 인터넷 관련 법을 제정, 효력을 갖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며 "사찰명 등 세계에 널리 알려진 고유명사, 유적·유물을 가지고 있는 불교계는 능동적으로 인터넷 관련 판례를 조사, 대응하는 길이 현재로서는 최우선"이라고 지적했다. (gobaocu@buddhopia.com)

염불만일회 8월 5~7일 건봉사서 결사

염불법회·아미타총공양 행사 다채

제6차 염불만일회가 5천여명에서 이르는 불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된다. 앞으로 1만일(27년 5개월) 동안 열리는 제6차 염불만일회 결사는 8월 5일 오후 4시 1230년전 제1차 염불만일회사가 개최했던 건봉사에서 입적식을 갖고 8월 7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힘차게 멋있게 신나게 나누어 미타를, 염불합시다'란 구호로 펼쳐지는 이번 염불결사는 보다 활발하고 활동적인 불교신앙운동을 정착하고 현대적인 신행풍토에 밀려 퇴색되었던 미타신앙을 복원하

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정토학회 정태혁 회장과 보광스님(종교대 교수) 등 정토학 관련 학자와 보성 녹원 설산 오현 해장스님 등 중진스님들이 법회를 주관·증명하고 염불수기를 관장해 알찬만일회사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법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염불법회에는 네 차례의 염불법회와 두 차례의 아미타총공양을 비롯 염불수기식, 법장비구 48대원 다짐 촛불의식, 아미타불 정진, 건봉사 부처님 진신차사리 친견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김재경 기자

조계종 제천장애인복지관 수탁

충북불교복지 '교두보'...서울 성내삼어린이집도 개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윌주)은 21일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충북 제천시청으로부터 제천시 청전동에 위치한 제천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수탁운영법인으로 선정, 오는 9월30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지난 4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을 개관한 데 이어 이번 장애인복지관 수탁은 충북지역에 전무하다시피한 불교복지시설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C2)470-2433 김재경 기자

복지재단이 직접하게 될 이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3층, 건평 2백평 규모로 목욕탕, 물리치료실, 진단활동실, 직업훈련실, 자원봉사자실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사회복지재단은 24일(금) 오후2시 강동구립 성내삼어린이집(원장 박태인)을 개원한다. 대지 및 건평이 각 70평인 어린이집은 지하1층, 지상2층에 보육실 5개와 유희실 2개, 사무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C2)470-2433 김재경 기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청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30여 종교·사회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공동회장 진관, 석담)는 30여 종교·시민사회단체와 공동으로 종교·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촉구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방침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회 청원. 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를 비롯한 30여개 단체들은 이날 대회에서 채택한 결의문을 통해 "정부가 복지비용을 운운하며 한사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같은 제도적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을 쏟아내는 것으로 문제가 풀릴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제도를 시급히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심수 전원석방 촉구 중단협 인권위 성명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인권위원회(위원장 해공)는 22일 '현정부는 양심수의 조건없는 전원석방으로 인권 선진국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종단협의회 인권위는 "새 정부는 인권법 제정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등 제도적인 인권수호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양심수의 조건없는 전원 석방에 현 정부의 결연한 조치를 촉구했다. 도필선 기자

뉴스 & 뉴스

'불교입문' '불교교리' 지침서

포교연구실은 신도교육의 해를 맞아 이미 발간한 '불교입문'과 '불교교리'에 대한 교육지침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불교입문은 24시간, 불교교리는 48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다. 신도입문 및 기초교리교육 교재의 지침서가 발간되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훈 기자(swjung@buddhopia.com)

방학중 결식아동에 점심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성공회 '나눔의 집', YMCA 등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먹거리나눔기동연합회는 각 단체가 운영하는 지역센터와 복지관, 동네 공부방등을 통해 지역 결식학생들을 파악, 이들에게 점심을 제공할 계획이다. 결식학생들에게 제공될 음식은 현재 운영중인 '푸드뱅크(Food Bank)'를 활용키로 했다. 김재경 기자

8월6일부터 대불런대회

한국불교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박성철)는 8월6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일대에서 제7차 한국불교 1800년 대회를 개최한다. '청년불자의 통일세상 만들기, 하나됨을 위한 우리의 작은 서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대불런의 통일이야기 △대불런 가요제 △북한동포돕기 모금 운동 및 캠페인 활동으로 진행된다. 오종욱 기자

불/자/정/보(사찰)

사찰부지안내

- ◆ 위치 : 경남 김해시 명산 '神魚山' 줄기 (김해시 상동면 목방리)
- ◆ 면적 : 가) 6,700평(전체 준농림) 나) 30,000평(준농림 18,400평, 농림 11,700평)
- ◆ 용도 : 사찰, 납골당, 부도탑, 실버타운, 전문주택, 종합병원, 동호인주택, 연수원,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설학원
- ◆ 교통 : 5분:인제대학교, 가야골프장, 김해상동 IC(예정) 7분:김해 IC 11분:김해 대동 IC 18분:김해구포역, 김해국제공항 21분:양산시 23분:창원시 25분:마산시
- ◆ 도로 : 가, 나)각각 도로 접합. 현재 5톤 트럭 출입가능 (98년 6월 폭 8m 아스팔트 확장 포장공사 착공)

TEL. 0525)32-8322~4

<자택> 051) 335-6392 011) 881-4863 012) 1568-6392

금화 공인중개사

(김해시 어방동 26B 15L)

사찰 분납 운영하실 분

- ◇ 위치: 경북 예천
- ◇ 부지: 700평(평탄 적업완료)
- ◇ 법당: 23평/ 묘사:37평 이상
- ◇ 가액: 8천만원(분납가능)
- ◇ 위치: 경주지
- ◇ 부지: 173평/ 법당: 20평 목조 단청
- ◇ 묘사: 40평/ 가액: 8,600만원

* 전국 사찰 및 포교인 급히 구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하신 분은 연락주시면 좋은 인연 연결해드리고 양도의 사찰 법률, 세무도 무상상담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동국불사 담당: 조범사 합장

상담전화 : 02)512-4447
호출상담 : 012)1648-6334

* 본 사찰은 정법도량이며 일인원, 보살, 무속인 대리상담 및 투기성이 짙은 실거래는 절대 사양합니다.

◆ 사찰 및 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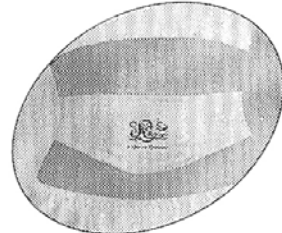
- ◇ 위치: 경남 진주시
- ◇ 부지: 약 2,000평(경로적업완료)
- ◇ 묘사: 28평(임법당 14평, 방4개), 7평(부엌, 욕실, 창고)
- ◇ 가액: 2억 5천
- ◇ 특 점: 계곡앞에 저수지, 양쪽 암반계곡, 기도처나 선원용도 진주시내 15분, 마산 I.C. 20분, 부산 1시간 거리. 전화·전기·도로 있음

016)589-0560
0591)758-3445

여성고민의 원인과 향요법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항비는(자연형) 테크팩과 멘톨이라는 정유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지방질을 산화시킵니다.

항비 香妃!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고민은 끝!

이 항비를 신김달(배꼽)에 착용하면 방향향유물질의 성분이 신김달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항비는 자연형인 피프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땀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김달(배꼽)에 항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정을 비롯해 자율신경 배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항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항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항기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항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항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체형사례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대 냄새가 결코 특하다
- 11 배나 복부 근력에 힘이 쎈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해당되는 증상(○) 하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이 아니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대 냄새가 결코 특하다
- 11 배나 복부 근력에 힘이 쎈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당노나 감성성으로 고통을 받는다

*2가지 이상 해당되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